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인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중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원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진근

1998년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예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름 교회학교 총 21개 부서가 8월15일까지 이어져

지난 6월 5일 신혼가정부를 통해 시작된 98년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영아부로부터 영아교육부에 이르기까지 교회학교 총 21개 부서에서 8월 15일까지 계속된다.

금번 성경학교 및 수련회는 총회의 총주제에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부서로부터 시작하여 부서 자체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주제들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 부서의 성경학교 기간 및 장소와 주제 등은 옆의 표와 같다.

농어촌전도대 교육 및 파송 일정

농어촌전도대원 전원은 아래의 일정에 따라 교육 및 파송을 받게 된다. 아래의 사항에 따라 참석하셔서 기도와 훈련으로 무장하고 힘찬 준비를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교육: 6월 28일, 7월 5일

(오후 3:30~4:40 베다니홀)

예배만개상 청년 대학부는

오후 4:00~4:30 베다니홀

• 파송: 7월 12일 찬양예배시

남성성장단 정기공연

- 일시: 6월 27일(토) 저녁 7시 30분
- 장소: 양구정동 세실아트홀
- 공연문의: 543-6752, 3446-1665

제1회 찬양대 지도자 강습 및 수련회

1. 일시:
8월 19일(수) 16시
- 21일(금) 22시
2. 장소:
충현교회 및 충현기도원
3. 강사:
충현교회 찬양대 지도자, 교역자,
찬양감독 등 13명
4. 강의:
같이 있는 실기 교육 및 영상 훈련
5. 강의:
본 교단 소수 교회 중 축적되고
300명 미만 교회나 찬양대원 30명
미만인 교회의 지휘자, 반주자, 독
창자
6. 신청 접수:
7월 13일(월) - 8월 1일(토)
충현교회 찬양위원회

부서명	기 간	장 소	주 제	주제성구	주제찬송	강 사
영아부	7. 20-7. 21	선103호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일4:11	서로게서 사랑하라	한영준 전도사
유아부	7. 20-7. 21	교212호	예수님을 따라가자	눅19:10	찬411장	김정자 전도사
유지부	7. 20-7. 21	교205호	예수님을 자랑하자	롬10:11	찬94장	정연희 전도사
유년부	7. 16-7. 17	교314호 외	하나님 알아가기	사26:4	찬456장	김영희 전도사
초등부	7. 16-7. 17	충현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어린이	요일4장11	찬408장	염현일 전도사
소년부	7. 16-7. 17	충현기도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요일5:14-15	찬480장	한승일 전도사
중등1부	7. 23-7. 25	충현기도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6:3	찬94장	박노철 강도사
중등2부	7. 27-7. 29	제2교육관	유일하신 예수님	요14:6	찬88장	정강신 목사
중등3부	7. 27-7. 30	충현기도원	찬양하라 내 영혼아	렘1:3-6	찬40장	이준경 강도사
고등부	8. 3-8. 6	충현기도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마3:8	찬331장	조문환 목사, 김장중 전도사
대학부	7. 6-7. 10	청소수련원	세미한 소리가 있을지라	왕상19:12	찬499장	김동희 목사
청년1부	7. 16-7. 18	농협연수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렘4:1	찬350장	김필수 목사 외
청년2부	8. 13-8. 15	충현기도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청년	빌2:5	찬507장	전영준 목사
청년3부	7. 16-7. 17	합동신학교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자	딤후4:15	찬507장	박영동 목사
장년2부	7. 6-7. 7	합동신학교	하나님께 인도받은 신앙인	롬8:14	찬442장	이승수 목사
장년3부	7. 14-7. 15	갈릴리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시119:105	찬234장	김종민 목사, 정현민 목사
소망부	6. 29-6. 30	갈릴리움	감사와 기도	살전5:18	찬411장	이종대 목사, 정복민 전도사
신혼가정부	6. 5-6. 6	지리산수련원	사랑하는 우리 부부	야7:10	찬511장	조철수 목사
사랑부	7. 17	교107호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행22:5-1	한국에 들어가는 믿음	이종성 목사
예배다(성인)	8. 14-8. 15	충현기도원	새롭게 살자	요3:5	찬204장	박익진 전도사
예배다(학생)	7. 20-7. 22	충현복지관	어려운 때 밝는 주님의 도움	행27:24	찬478장	노형민 목사, 이우환 전도사
영아교육부	7. 17	충현복지관				

단기선교팀 2차 출발

영적 전쟁터 방글라데시·수단을 향하여
각각 25일과 27일 출발, 현지인 전도 중심

지난 20일 중국1팀이 출발한 것에 이어 방글라데시팀과 수단팀이 각각 25일과 27일에 출국한다.

방글라데시팀(단장 정홍식 장로, 지도 박경환 목사, 총무 정의홍 집사, 대원 김은미 외 7명)의 주요 전략은 직접 전도이다. 방글라데시팀은 6월 25일 출국 당일 밤에 현지에 도착하여 1박 한 후에는 곧바로 2인 1조로 나누어 방글라데시의 도시와 오지 및 빈민지역들을 방문하면서 민박을 통한 직접 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낯선 회교도들과 직접 부딪히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역하는 것이다. 위험한 사역이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보다도 기도와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역이다.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 팀 전원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활짝 열고 매 주 토요일마다 가자던 선교 성경 공부를 확대하여 5월부터는 매주 수, 금, 토 3일씩 켜가며 기도회와 말씀공부 그리고 전라회의 등으로 집중하여 훈련해 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에 나온 방글라데시인 근로자들과부터 언어훈련을 받고 그들을 통해 민박처를 구하는 등 특별한 은사를 이미 경험하기도 했다. 방글라데시팀의 귀국 날짜는 7월 4일 오후 3시 40분이다.

한편 수단팀(단장 이창호 장로, 지도 김희수 목사, 총무 박대양 전도사, 대원 정은희 전도사와 7명) 역시 직접 전도를 주요 전략으로 하고 있으나, 좀 더 다양한 전도전략들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단팀은 찬양과 예배, 드라마와 영화, 사영리전도법 등을 준비, 훈련해 왔다.

수단팀은 6월 27일에 출발하여 수단에 도착한 후 공식 전도를 금지하는 수단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지인 개척교회 및 병원, 감옥 등이 있는 지역과 피난민촌 등을 방문하여 축조전도 및 개인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수단팀의 구상된 대대수는 선교 헌신자로서 각자가 금번 단기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있으며 선교 실제 상황에 대한 경험을 통해 구체적인 준비들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다.

이 중대한 임무를 위해 수단팀은 매



▲ 지난 주 찬양예배시에 거행된 단기선교 파송예배 모습

주 토요일과 주일 저녁에 말씀과 기도 주 구체적인 준비를 지속해 왔다.

총회의 모든 성도들은 '기도가 영적 전투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기억하면서, 최전방에 있는 선교사의 심정으로 이들을 위한 전폭적인 기도에는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이들과 함께 헌신으로 향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방글라데시팀과 수단팀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생명을 심는 복된 여정이 되어야 하겠다(4면에 관련기사).



김창인 목사

두로에 관한 경고

(이사야 23:1-18)

두로가 회개한 증거는 물질을 선히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음 자료, 잘 입을 자료라 되리라”

이 방 세력의 교만에 대한 경고는 바벨론에서 시작하여 두로에서 끝이 납니다. 바벨론이 지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고 하면 두로는 해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1. 두로의 멸망을 경고하였습니다

(1) 두로는 어떤 지방입니까

첫째, 천연 요새입니다. 두로는 지중해에 접해 있는 곳으로, 두로는 큰 반석 위에 건설한 천연의 요새로 어떤 군대라도 쳐들어 갈 수 없음을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둘째, 열국의 시장이었습니(2, 3절). 두로는 곡식이나 다른 무역품을 시돈에서 구입하고 시혼과 연결되는 바다를 통해 애굽과도 통상을 하였으며, 모든 나라의 물건과 세계 각국 상인들의 종 집결지였습니다(제 27:2, 3절). 이로 인해 두로는 많은 이익을 얻는 지중해 지역의 상업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셋째, 회락의 도성이었습니다(7절). 두로는 환락에서 이름난 도성이었습니다. 두로에서는 무도회장, 공연장과 온갖 종류의 오락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면류관을 씌웠던 곳이었습니(8절). 두로의 장관들의 관세와 의복은 대관하여서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자들에게는 면류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존귀한 자라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

(2) 두로가 망한 결과가 어떠합니까

첫째, 다시스의 배들이 슬프게 울게 됩니다. “...다시스의 선척들이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니... 두로가 황무하여 지고 없고 갈 곳도 없으시요 이 소식이 텅 빈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1절).

왜 ‘두로의 배들이 슬프게 울리라’ 하지 않고 ‘다시스의 배들이 너희는 슬프게 울리라’ 하고 했을까요? 다시스의 배들이 많은 물건을 싣고 두로에 장사하러 가다가 깃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때에 두로가 망했다는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다시스의 상인들은 두로에서 물건을 사다가 자기 나라에서 팔아서 큰 돈을 벌었다는 꿈을 안고 두로로 가기 위해 마지막 기항지인 깃딤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통곡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애굽의 누부뎨가 통곡을 하게 됩니다(2-5절).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사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이 잠잠하라 시혼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곧 물로 수운하여 들었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2, 3절).

애굽에서는 곡식을 거두어 이것을 두로에 가져다 팔았습니다. 두로는 이 곡식을 사서 자기네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다시 팔았습니다. 그런데 두로가 망하면 애굽도 많은 곡식을 팔 길이 막힙니다. 그러니 애굽도 통곡을 합니다.

(3) 두로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8-9절)

첫째,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벽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노는 만군의 여호와와 정하신 대로...”(8, 9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정해 놓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는 망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복주시기로 정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는 복을 받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치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천연의 요새인 두로를 정할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할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처지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매망할 때에 알맞은 것들이나 살피고야 합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독사와 같이 독을 품고서 미사여구로 혀를 날름거리는 거짓말도 속이려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심판으로 잡으십니다.

둘째, 교만 때문입니다. “...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9절).

사람은 남보다 조금만 나으면 교만해 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예뻐도 그 인물을 내놓고 교만하고 돈이 좀 많다고 교만하고 지식이 남보다 조금 많다고 교만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고 보면, 두로는 인간적으로 교만하고도 남습니다. 돈이 많고 국력이 있고 지식 수준이 높고 세계의 공권력을 아름다운 환경에서 사나와 교만할 만합니다.

교만한 자는 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반역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내 가지로 반역자가 됩니다. 첫째로, 자기들의 야심을 거스릅니다. 둘째로, 자타를 거스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합니다. 교만한 자는 이성과 감성이 반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으니 갈 데가 없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으니 동정을 받을 곳이 없어서 아주 망하고 맙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두로에 망한 것은 다른 사람을 괴롭힌 죄입니다. 이 사람을 괴롭히고 저 사람의 것을 빼앗아 먹고, 이 나라 사람을 속이고 저 나라 사람의 것을 빼앗는 등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두로에 장사하러 다닌 사람들도 억울함을 많이 당했습니다. 두로가 강하니까 그들과 무역하려 할 때에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두로가 너무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두로가 하나님에게 멸망의 보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두로가 망한 결과가 어떠합니까

“...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겠느니라”(12절).

가도 망한 두로는 아무리 피난을 가도 그곳에 회막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사람은 어느 곳으로 도망을 가도 그곳이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은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나 천국입니다.

2. 두로의 회복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망했던 두로가 아주 망하고 없어질 줄 알았으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보다 나은 더 잘 살도록 회복시켜 주신다고 예언하였습니다.

(1) 두로가 망한 이후 회복되기까지의 연한이 얼마입니까

“그 날부터 두로가 만 왕의 연한 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끝난 후에 두로는 가생 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15절).

‘만 왕’은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대하 36:21). 두로는 예루살렘이 멸망되던 무렵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멸망당하였고 70년 동안 두로 백성은 이곳저곳에 끌려 가서 배를 맞으며 강제노역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였습니다. ‘두로’라는 이름까지 들어 지만 7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로가 다시 등장하는데 그때에는 전보다 더 훌륭한 두로로 나타납니다.

(2) 두로가 회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권고 때문입니다. “70

년이 끝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리라...”(17절).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두로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 신앙이 확고해 되었습니다.

둘째,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두로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는 경고를 듣지 않다가 망하였는데 정작 두로가 망하고 보니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기억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했습니다. 아주 망하지는 않았으나 그 망한 자리에서 원망을 했으면 아주 없어졌는데 망한 자리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두로가 회개한 증거는 물질을 선히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음 자료, 잘 입을 자료라 되리라”(18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3장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내가 예를 써서 돈을 모으고 함의를 잡아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쌓아 놓았던 돈도 없어지고 잡았던 권세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 복이 되자, 사람이 얻어 놓은 것으로 복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일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인지를 늘 살피면서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사람에게서는 미움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반역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코웃음치면 망하는 날이 옵니다.

넷째로, 망했던 사람도 참으로 회개하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 회복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니 감사생활을 하시고 내를 맞았으면 회개하여 이제는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



김성만 목사

참 영광

(고린도후서 3:12-18)

“예수 안에서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행하는 일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 에 보낸 두번째 편지입니다. 그는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는 사역의 참 영광에 대해 밝히 설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경험하게 될 때, 또한 그분의 자비를 마음 깊이 느끼게 될 때 새 언약에서 찾을 수 있는 참 영광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던지는 두 가지 질문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먼저,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했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부치거나 혹 너희에게 말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3:1).

첫번째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던 일을 성취했을 때 나타내는 그들의 자세나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한 일들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항상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우리가 누구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웁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찌하여 어떤 설명도 필요치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받으시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받는 칭찬의 참 모습, 곧 예수님의 신임을 받은 신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간결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2절).

고린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증거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변화된 모습 자체가 바울뿐 아니라 오 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신임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참 영광

사도 바울은 이제 놀랍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참 영광에 관하여 기록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막으로 쓴 것

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심비에 한 것이라”(3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 곧 우리를 위한 그의 신임장이 곧 우리의 간증입니다! 물론 우리를 추천하시는 하나님의 편지는 여러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종이에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색이 바래거나 변할 수도 있는 잉크로 쓰여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심령 속에 쓰여졌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않는 편지가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분의 종입니다. 그들 중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자는 없습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기술, 지식이나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만이 필요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주위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자신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바른 성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더욱 훈련받고 기록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생각을 하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확신있는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 있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그분 앞에 적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없으니(4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귀한 보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로서 난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5절).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였으니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임이라”(6절).

우리에게 명확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임이라’. 의문은 심계명과 같이 쓰여진 율법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이해시켰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그리스도 이전의 사역도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죽음과 사그라짐으로 끝나고 말 모세의 사역에서도 빛나는 영광이 있었다면, 하물며 새 언약의 성령님과 함께 임하는 사역의 영광은 얼마나 더 빛나겠습니까?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을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9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는 죽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11절).

두려울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서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행하는 일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같이 아니하노라”(13절).

우리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얼굴은 숨길 필요가 없는 영원한 광채로 빛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글픈 일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로지 율법에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서들 그들의 심령에 임재하여 계시지 않으므로, 그들의 심령과 얼굴은 가리워져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15절). 그러나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16절)!

생명과 자유를 주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과 자유를 줍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17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유함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세상적인 쾌락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자유는 마음껏 놀아나며 즐기고 인생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원하는 대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아니면 속박입니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한 자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온전한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18절).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은 점점 커집니다. 없어지고 말았던 모세의 영광과는 달리 우리의 영광은 계속 커져만 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두 새 언약의 사역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과 자유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마 28:18-20).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사역은 크고 작은 우리의 모든 행함을 지켜 보는 사람들의 삶속에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거룩한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영광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더욱더 새롭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

정말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는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여러 성도님들이 서 계신 이곳에서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수단 단기선교팀 27일 출발!

급변 단기선교팀 중에 사역기간이 가장 긴 팀(13박 14일)이 수단팀이다. 6월 27일(토) 출발하여 7월 10일 귀국 예정인 수단팀은 단장 이창호 장로, 지도 김희주 목사, 정은희 선교전도사, 박태양 선교전도사, 김계해 집사, 김영신 자매, 안정화 자매, 안혜진 자매, 최지영 자매, 이숙향 자매, 최선호 형제로 구성되어 있다.

매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수단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가며, 사역에 필요한 아람어와 해방이라는 제목의 드라마, 찬양 등을 준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더운 날씨(약 45도)로 인하여 팀원들이 지치지 않을까 염려가 되지만 끝까지 잘 감당하고 돌아오리라 믿는다.

수단팀 기도제목

1. 성령 안에서 모든 팀원들이 하나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되게 하소서.
2. 모든 팀원들이 영육이 강건하며, 그곳의 모든 열악한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소서.
3. 모든 위험(말라리아, 전갈, 비행기, 차 등)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4. 각 사람들이 성령에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5. 만나야 할 자를 예비시켜 주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6.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수단 땅을 사랑하며,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들을 듣게 하시고, 느껴야 할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7. 수단 김영태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의 확장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8. 이번 단기선교에 참가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선교의 불을 지피는 동원가 및 헌신자가 될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총회와 7천명 선교사 파송의 그날을 속히 허락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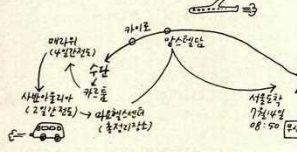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 25일 출발!

1.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이 준비하는 동안 대원간 더욱 연합하고 중보기도하게 하소서.
2. 각 대원들이 선교기간 뿐 아니라 준비기간 중에도 더욱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3. 정해진 현지인 집에서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4. 병들어 훈련을 잘할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하소서(30분장 이상 읽기).
5. 현지 기후와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건강을 주소서.
(지금은 아주 심한 우기중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이기에 각별한 행동이 요구됩니다.)
6. 어떤 상황하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7. 방글라데시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8.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소서.
9. 방글라데시인들의 마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10. 방글라데시가 경제적 빈곤과 영적 침체에서 하루 속히 벗어날 수 있게 하소서.
11. 회교가 국교이므로 어려움이 있는데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주소서.
12. 지도 목사님과 단장, 총무, 대원들의 건강을 지켜 주소서.
(박경한 목사, 정홍식 장로, 정의홍 집사, 신유원 형제, 박근호 형제, 이종원 형제, 김은미 자매, 김서영 자매, 류지영 자매, 김지이 자매, 이원호 형제)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은 본 교회 외국인근로자사역부에 출석하는 방글라데시인들과 함께 외국인근로자사역부 집회에 참석하여 그들의 언어와 풍습, 지역 특성 등을 배워왔다.

단기선교 이모저모

- 단기선교 파송예배(14일) 실시
14일(주일) 저녁 예배는 단기선교 파송예배로 드렸다. 단기선교팀 전원이 찬송 252장 '기쁜 소리 들리니'를 찬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 단기선교팀 전체 기도회(11일) 실시
단기선교팀 전체 기도회가 11일(목) 저녁에 있었다. 급변 단기선교는 예년과는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선교지에 접근하며, 또한 각 선교지는 가난과 질병과 더위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더욱 철저히 부르짖는 단기선교팀원들을 보며 이제는 전교인이 기도로 동참할 때라고 생각된다.
- 예배 집중 실시
단기선교팀은 각 선교지에서 발병하고 있는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으로 주사를 맞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 한 사람도 육신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 6월 20일 단기선교 복음화 첫 출발
청년2부로 구성된 중국1 단기선교팀이 20일 오전 9시 교회에서 공항으로 출발하였다. 아직도 중국은 복음에 대해 열려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예측되지만 잘 감당하여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란다. 귀국 예정일은 6월 29일이다.

"이들을 성령의 도구로
써 주소서"



↑ 수단 단기선교팀 일정

"방글라데시인들의 영혼을
이들의 손에 붙이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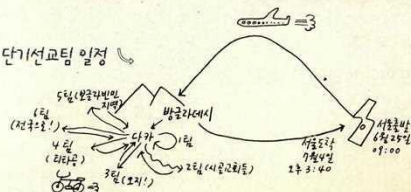
방글라데시팀 외국
인근로자 사역부 집
회 참석

"기도는 곧 전투입니다. 하
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단기선교팀 전체 기도회(지난 11일)
"주여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 일정



복음의 눈으로 세상 읽기

I “디프 임팩트”를 보고...

—휴머니즘과 과학으로 심판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

양 윤 선(대학부 2학년)

이 영화는 우선 화려한 화면과 극적인 상황으로 구경꾼을 사로잡는다. 많은 관객을 끌어 모은다. 한 소년이 여자 친구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천체를 관찰하던 중, 우연히 혜성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또 한 천체학자도 그 혜성을 발견하고 그 별의 진로를 확인하게 되는데,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을 발견한다.

우주선 ‘메시아’의 등장

이 일로 백악관에선 대책회의를 열고 ‘메시아’라는 우주선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1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요새를 만들 계획도 세운다.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은 메시아에게 희망을 걸었다. 메시아는 작전대로 혜성을 향해 핵폭탄을 폭발시켰지만 폭탄이 혜성을 뚫은 길이가 그리 깊지 못해서 그것을 돌려 나누는 걸까만 초래한다.

극한 상황에 일단 선발된 사람들만이 요새로 들어가고, 결국 조개진 혜성의 작은 것이 지구로 떨어진다. 큰 해일이 도시를 덮쳐 빌딩들이 무너지는 등 도시 전체가 파괴된다. 급기야 메시아의 승무원들이 남은 핵폭탄을 싣고 자폭으로써 큰 혜성을 막아낸다는 것으로 영화의 매듭이 지어진다.

이 영화에서 인류가 맞게 된 위기는 혜성과 지구의 충돌이다. 영화 내에서는 공룡의 멸망 역시 혜성 때문이라고 단정짓는 것 같았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영화는 인류의 멸종을 담은 각본으로 짜여져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 하에 예상되는 피해는 해수면의 상승, 대기의 불균형 등이 있다. 즉 멸종의 위기가 인간들에게 던져지고 그것을 극복해 내는 것이 이 영화에서의 인류의 과제이다.

‘노아의 방주’ 만들기

제난에 대한 인간의 대책은 우선 ‘메시아’의 발사였다. 이 우주선으로 혜성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대책은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다. ‘메시아’가 실패할 것을 대비하여 인류가 공통처럼 멸망하는 것은 막으려는 인간의 노력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런 상황이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를 연상케 한다는 것이다. 우선 해수면이 지면을 덮어 버리는 것이 비슷하고, 그것의 결과는 인류의 멸종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신다. 노아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와 그

의 가족을 방주에 넣으셨다. 하나님이 홍수를 예언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으로 방주를 계획하셨다. 이 영화에서는 한 소년이 혜성을 발견하고 과학자들이 홍수를 예언한다. 인간이 무슨 방법으로 알 수 있었을까? 바로 과학에 의한다. 그리고 그들은 과학 기술을 사용해서 인류에게 닥친 이 위기를 이겨낸다. 결국 인간은 막아냈다. 인간의 과학과 몇몇 영웅들의 행동들로 말이다.

휴머니즘과 과학으로?

이 영화만을 보고 생각해 본 바는, 노아 때의 홍수가 지금같이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 닥쳤다면 그것을 인간들이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에게 과학만 있었다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어렵게 든다. 결국 인간이 승리하지 않았는가.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에 눈에 띄었다.

“디프 임팩트”(Deep Impact)는 온통 휴머니즘으로 포장되었다. ‘리나’라는 여영커가 마지막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아이가 있는 선배에게 넘기고 자신을 버린다. 아버지와의 화해이다. 인간은 극한 상황에서는 선배진다는 것이다. 과연 인간이 그런가.

내가 느낀 바를 솔직히 말하자면, 인간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설정에 그리 답답하지 않다. 대통령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그의 연설에는 신에 대한 찬양이나 언급이 아닌 인간의 위대함만이 드러나고 있다. 노아의 홍수사건에 도전하는 것에도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 때후에 있는 인본주의와 과학만능주의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II “조용한 가족”

—웃으면서도 찡찡한 영화—

박 근 호(대학부 5학년)

웃으면서도 찡찡한 영화. “조용한 가족”은 내게 그런 영화였다. 코믹잔혹극이라는 장르의 특이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긴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코연 형제의 영화 ‘과고’에서 약간 발전한 수준인 것 같다. 장트를 섞어 놓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매력적이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 언제 칼을 뽑아들었는지도 모르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동방불패와 같은 무술 영화와 가난한 가정에서 불행을 겪기만 하던 이의 밀바다 인생이 보여지는 영화가 같은 영화에서 소화될 수가 있었는가. 인생의 밀바다만을 전전하던 가난한 주인공이 무술의 고수를 막으려는 악당에게 고용되고, 그는 전후 사정을 알지도 못한채 고수에게 한 단칼에 쓰러지게 된다면 보는 이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할 것인가. 그것도 주인공이 쓰러지는 장면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다루었다면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될 것인가. 아마도 무술의 고수에게 쓰러지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맥락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지 않았는가.

이처럼 장르는 섞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관객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된다. 영화를 평소에도 많이 보는 사람이라면 좌석에 편안히 기대고 앉아서 다음 장면을 예상하곤 한다. 그리고 매지저사 영화인 수록 그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많이 부자한 영화인수록 관객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여 주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르의 혼돈은 관객에게 당혹스러움을 안겨 주고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 영화를 보았던 한 자매가 자신이 웃으면서도 ‘내가 웃어도 되는걸까’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한다. 웃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영화는 온근히 공범임을 인정하고 바꾸고 있는 것이다.

웃음과 잔혹극이라니...

웃음은 사람의 마음을 풀어 주는 역할을 한다. 경직되어 있는 낯선 관계가 서로 웃는 것 하나로 마음이 연결될 수 있다. 잔혹극, 그것도 연쇄살인을 다루는 잔혹극을 다루면서 웃음이라는 요소를 첨가하는 것은 그래서 그 효과의 위험성의 면에서 무뎠하다. 심정적 연결의 고리를 돈으로 인해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주인공들의 판단에 대해서 동정심과 동련의식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죄악의 파괴성과 일상성

이 영화를 통해서 교훈적인 요소를 찾았다고 한다면 죄의 파괴성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다(이는 파괴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조용한 산장에 자살하러 온 한 남자, 그리고 그 죽은 시신을 은폐함으로 조용한 산장에 있던 일가족은 조용한 가족이 되어간다. 그 일가족은 그런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죄에도 몸을 담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동기가 있다면 바로 자기 보존의 욕구이다. 영화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묻는 것이 있다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안그래?’ 하는 질문이다. 이는 참으로 핵심적인 죄의 요소라고 생각한다. 자기 보호를 위한 그 어떠한 거짓말 하나가 더 큰 거짓말을 낳게 되고, 그런 거짓말을 하다보면 동일한 상황이 맞이할 때 어떤 거짓말을 하든 거짓말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거짓말을 할 때의 거짓말하게 되어 버리게 되는 순환의 소용돌이와정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사슬을 끊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6·25를 돌아보다)

통일 통일 통일이어!

아아 6·25
49년 함북의 비극
슬픈 동족의 아픔
원수 아닌 원수다.

아름다운 삼남 풍지
총산로 열혈적 마음
집안싸움 없애고
평화되어 싶여.

장막의 매일 전이외
형제 자매 한자
통일을 위해부디
사랑을 꽃피우려라.

저 휴전선 건너편에
내 고향 자유의 성터
7천만 초원은 통일
백만 교회 함께 기도하리.

관문만 우리 편을
복합화통일 앞당기
따린 벽 뚫어보자
우리 힘 모아 이뤄보자.

한라산에서 배두산까지
노후 사슴같이 뛰자
손에 손잡고 원그리며
집사가들 댕개 노르리.

삼천리만도 금강산
하얀눈 주신 동산에
복음화통일 이루어
하나님나라 확장하리라.

김 종 필(서사, 중동2과 교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이 몸 다 드려도 감사밖에는

최 순
(권사, 제10교구, 새가톨릭 교사)

1957년 초이타의 돌을 지낸 후 전반기 영양 균형된 시절에서 남편과 함께 세 식구가 살다가 지금의 충주청양 구 충현교회 옆 놀이터 수영장 뒷쪽 관자집에 자리를 잡아 정착하게 되어 그곳에서 하숙을 치며 세상 풍습대로 살아가던 중에 남편이 육신의 병이 들어 치료비로 가산을 탕진하고 심의에 빠져 근심 속에 지내고 있었습다. 그 후 김갑순 집사님의 인도로 1963년 충현교회에 등록을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하숙을 치던 관자촌이 도시설업사업으로 헐리게 되었고 급기야 이주인이 되어 서울 북쪽의 낙동동의 이주촌에 정착하게 되었지만 남편은 각기병과 정신질환으로 병이 악화된 후 심의에 빠진 육신을 슬로 연명하며 버티다가 1965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3남매를 두고 떠난 남편을 원망하기보다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험난하였지만 그럴수록 더욱 주님께 알날을 맡기고 방직업체와 식품회사에 적을 두고 살면서 3남매를 예수 안에서 양육하게 하여주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후 식품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축적된 여윌이 주님을 알도록 모든 동료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원들에게 그 훌륭한 목사님이 알려주시 안드레아 전도법대로 무조건 '와 보아라'는 뜻 아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믿었는데, 그



분들이 지금은 권사로 집사로 많은 결실을 맺게 된 것을 감사로 드립니다.

식품회사를 피사하고 어렵게 지내고 있을 때에 교회 전도사님의 주선으로 구의동에 있는 K물산 기숙사 사람으로 근무하게 되어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생산직원으로 부자가 없던 고아, 집을 나와 기숙사에

서 기거하는 어린 소녀들과 약 10여년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주님과 같이하며 생활할 때 그 때에는 알지 못하였던 주님의 복음의 열매가 지금도 포도송이처럼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고 조건없이 주님께 명령인 복음의 말씀에 전하십시오. 주님은 인제과 기두주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는 생활을 하지 않도록 불려주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집사로 차남부에서 봉사하며 차남도 집사로 수련의 양육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몸을 다 드려도 감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강이 허락되는 한 주님이 세우신 만민이 기도하는 충현교회원서의 봉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히 생각하면서 남은 여생을 주님께 충성하기를 다짐하면서 부족한 자를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모든 약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때

이 주현
(집사, 1교구, 사랑방 교사)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부족하고 못난 나를 하나님께 자녀로 불러 주신 주님께 지금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기에 나는 너무나도 교회가 좋았다. 교회만 가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다. 그러나 불신 가정에 태어나 불신 부모님의 필박으로 회초리로 맞고 머리카락을 잘리는 등 온갖 박해를 받으며 살았다.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 나보다 어엿한 성년이 되어서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지, 나를 사랑하심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날마다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다. 오늘 새벽 예배가 끝나면 내일 새벽이 언제 오나 시간을 계산하며 교회를 사랑했다. 믿음의 가정에서 너무나 부럽고 신앙 생활 마음놓고 하고 싶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후 어느 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3형제를 허락하시었다. 그러나 막내가 3살 때 말을 잘 배우던 중 갑자기 듣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며 진단을 받았으나 같은 진단이었다. 영로 인해 듣는 신경이 파괴되었다고 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지는 못했다. 하나님을 원망도 했다. 교회가 싫었다. 나뭇대로 신앙 생활과 가정 생활에 충실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가. 그러나 살아 같은 믿음이나 내게 주셨기에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농아의 아들을 붙신 가정에 주시지 않고 믿음의 우리 가정에 주심을 감사하며 농아되면서도 정상 학생과 같이 대학생으로 공부하게 하신 것에 진실로 감사하며 살아 가고 있다. 비록 말을 하지 못하지만 좋은 두뇌와 건강한 눈을 아들에게 주실도 감사하며 산다. 배우자 하나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 집의 가훈은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며 내가 있는 곳에 선행해 쓰임받자"이다. 100%는 아니지만 힘써 노력하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떠한 약조건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할 일들을 찾아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라와 교회와 직장, 가정, 자녀, 내 자신에게서 감사의 마음으로 살 때 얼굴과 마음에 기쁨이 넘치며 가정에 화평이 찾아올 것을 마음에 믿으며 생각하는 것 같아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향될 오늘 이 시간도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신론기행부 수련회를 마치고

사랑하는 우리 부부

푸르름이 일어가는 6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계절에 신론기행부의 15회 여름수련회를 은혜로이 마치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계절에 예쁜 신론부부들이 지낸 1박2일의 수련회 모습을 정리해본다.

6월 5일 오후 7시 30분 교회 제2교육관 앞에서 기도로 출발, 1시간여 만에 자연의 소리가 들려오는 지선수련원에 도착하여 첫날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면회장의 인도에 따라 찬양으로 자연 속에서 마음의 창을 열고 '사랑하는 우리 부부'라는 주제로 개회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 기도회에서는 어둠 속에 촛불을 켜고 주님 돌아가신 십자가의 공로와 다짐을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각 사람이 촛불을 모아 주님 돌아가신 십자가를 밝힐 때에는 좋은 길, 험한 길도 두 손 잡고 나아가리라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귀한 가르침을 실행하고자 참회한 모든 부부가 기도하며 서로의 발을 씻기고 닦아 주는 세족식을 가졌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헌신과 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짐했다.

6월 6일 아침, 조용히 함께 산세 소리로 잠을 깨고 바라는 수련원의 모습은 자연 속의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새벽 기도회에 이어 각 조별로 이뤄진 QT시간. 디모데전서 2장 8-15절을 묵상하며 깨달음을 주는 성경을 마음에 담고 각자의 결심을 나누며 QT를 통해 허락

하시는 큰 은혜를 느꼈다.

아침 식사 후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크리스천과 재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개 조로 나누어 조별토의를 하였다. 돈과 행복의 관계, 돈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돈이 부부 갈등의 요인이 되는지, 동료와 빈곤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의 소재를 놓고 크리스천과 재물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는데 모두가 내린 결론은 어떠한 경우에도 청지기로서 재물을 대하며 부부가 항상 대화를 통해 가정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수련회 특장 시간은 잠인 5장 15-21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조원수 목사님의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참가자들은 오직 주님 가르치신 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남편, 내 아내를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사랑함으로 칭찬받는 부부가 될 것을 다짐하였다.

이어서 공동체헌원이 있었다. 조별 달리기, 릴레이게임 등을 하며 목사님, 장로님, 교사, 회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폐회예배 후 기념촬영으로 예쁜 모습들을 남기고 우리 모두는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는 부부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며 귀가길에 올랐다.



지체들 소식



▲ 지난 6월 13일 사초교회원회에서 열렸던 임나멜렌강대. 오케스트라의 작은사람음악회 모습

풍성한 은혜와 교제의 전지

임나멜렌강대 작은 사람 음악회

임나멜렌강대. 오케스트라가 주관하고 4교구. 사초구청 신우회가 후원한 작은 사람 음악회가 6월 13일 오후 7시 30분 사초구 구민회관에서 열렸다.

4교구 지도 집회수 목사의 개회 기도로 시작된 이 음악회는 170여명의 단원과 찬양대원 가족, 4교구 식구, 초청자 등 800여명이 무대와 객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임나멜렌강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를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주의 은혜를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다.

특히 이날 음악회에는 사초구청 신우회의 협조로 사초구 소속 미화원,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등 불신자 150여명이 초청되어, '아이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위한 음악회'라는 이 음악회의 취지를 더욱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이 음악회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회로 인도하기로 했다. 찬양대, 교구, 지역 단위가 협력하여 치러진 이번 행사가 교구, 더 나아가 교회 부흥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부

학부모 초청 좌담회

6월 14일 영어부에서는 학부모 초청 좌담회를 가졌다. '우리의 아이를 지금 잘 키우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4명의 엄마 아바들이 그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기쁨과 슬픔을 서로 나누었다. 엄마 아바들이 늘 기도하며 아이를 키우는 것이 참 감사하다. (송혜경 통신원)

유치부

미래의아브라함이 될새진구들과 함께

지난주 유치부에서는 '새진구 초청잔치'를 열었다. 작은 아브라함이 되어서 친구들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온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차'를 치며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온 할아버지가 한 아이의 진도로 예수님께 나갔을 때 성경을 볼 때 어린이들의 얼굴은 진지하기만 했습니다. 유치부에 처음 나온 새진구들을 환영하며, 또 우리 작은 친구들이 '외 외의 소리'로 미래의 아브라함으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조비희 통신원)

유년부

지난 주일 신일반 선생님 소개때 두 분이 빠졌지 뭐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분들과 부장단을 함께 소개하려고 해요. 먼저, 신일반의 회개형 선생님을 피아노 반주로 예배를 드우고요, 박을 칠 선생님은 정화하고 성실한 서문 반개로 소문난 분이에요. 이제 부장단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유년부를 지도하시면서 전도와 기도의 본을 통해 모세와 같은 열정 지도자시기를 힘쓰시는 김영기 전도사님께서 수고하고 계시요. 모든 일을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대하시며 삶이 있는 신앙인으로 인격적 어른이신 유년부 부장님 이상우 장로님, 진심함과 순수함을 간직하고 계시며 절대 충성의 신앙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를 강조하시는 강철형 부장님 집사님, 3년의 전신사 중 한 분이시기에 인자함과 자애로운 모습으로 유년부 기도의 어머니이신 안금주 부장님 사님, 이제 분은 마치 모세의 좌우편 팔을 들어올렸던 아론과 홀을 연상시키는 듯하네요. (강현숙 통신원)

초등부

기대하세요, 여름성경학교

우리 초등부에서는 7월 16, 17일 2일로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 주는 어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과련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 주고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나 혼자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이기적인 배불뚝이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아니면 너무 게을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 영양실조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친척, 이웃, 친구들에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들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부터 매주일 초등부에서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대하세요. (이미숙 통신원)

중등2부

'교회나, 공부나'

노랑, 빨강 ... 오색의 풍선이 걸려지고 청문에는 조명을 위해 두터운 커튼을 내려고 조명이 꺼져 두 대도 동원되었지만 예배실은 어느때와 다름없이 이곳 저곳에 한 자리가 제법 빈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초청전도사님 발을 날리는 세련된 빛깔의 팻대도 어쩔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간만에 있었던 축가경이 맞았고 있었고 아침부터 부슬부슬 비 내리는 날씨 맞도 물론 있었지만요. 그러나 이런 빈 자리와야는 상관없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수살람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 그 기도의 힘은 이방 나라 아다스나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겠다"는 말씀을 통해, 또한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과 '교회나, 공부나'라는 제목의 성경을 통해서도 알면 중등2부 가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묶여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 다. (나성애 통신원)

고등부

충동원주위 위해 기도과 관심을

오는 7월 12일을 충동원주위로 지키며 많은 양 찾기 행사를 합니다. 이번 행사는 고등부에 등록했지만 학업으로 또는 대배부를 드리고 감으로 고등부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다시 인도하기 위한 것인데요. 1-3학년 각 반별로 1명씩을 인도하자는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고등부 회원의 부모님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은화 통신원)

새가족부

찬송부르기대회

를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찬 지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계시던 장 할머니가 '예수님이 이래 좋은 걸 왜 이제서야 믿게 됐는지, 왜 옛날에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하신다. 장 할머니는 연세가 73세 이신데 작년 7월에 교회에 처음 나오신 후 약육반 6개월 학습 수료 후 지금은 세례반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신 분이요. 마침 지난 주일(14일)에 새가족부 찬송부르기대회가 있었다. 그동안 각과별로 지정곡, 자유곡, 2곡을 연습 후 드디어 새가족들의 찬송 경연이 있는 날이다. 장 할머니는 안절부절 못하시며 걱정이다. 찬송은 들으면 그렇게 좋은데 부를 줄 몰라서 걱정이었던 것이다. 교회에 오면 이렇게 즐거운데 옛날에 막내 딸이 교회하는 것을 야단쳤더니 가슴 아파하시고 언제쯤 찬송을 잘 부를 수 있었느냐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에 영혼의 갈급함과 사모함이 절절히 배어 있어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릅답다. 손을 꼭 잡으며 "그냥 서게서도 돼요. 많이 들으시면 알아지면 서 부를실 수 있는 거예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쑥스러워하시면서도 참여하셨다. (한숙정 통신원)

1교구

루디아 회원들 목회 전도 실시기로

민지가 말끔히 씻겨 내린 비개인 날의 맑은 하늘이 폭포 마음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는 6월 15일, 사랑부실에서 루디아 1지회 월례회가 열렸다. 특강을 통해 구명선 전도사님은 '전도는 전령으로서 세상과 마귀와 죄와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한다. 전도방법에서 특히 태신자를 일컬을 수 있도록 목표감이 기도로 준비하여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공로에 감사의 확신

을 갖고 담대히 전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다. 이에 따라 우리 모두는 목요일에 전도하러 나서기로 결정했다.

1교구를 지도하시는 최지혜 전도사님이 목회 상담과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심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위 분들에게는 기쁨과 반가운 소식이기도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신 것으로 우리 모두 축하와 큰 박수를 드린다. (임통계 통신원)

15교구

교구모임 시간은

즐거움 연합의 시간

지난 13일 15교구는 연합전도회 및 친교회를 교육관 212호에서 모임을 가졌다. 가정에서 필요하지는 않은데 다른 가정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물건 2점씩 가져와서 교환하기로 한 물건 나누기 시간에 내어 놓은 물건의 선택권은 새신자이며 즐거운 것으로 그 다음 선택의 기회는 모인 교구 식구들 이름을 5명 이상 알지 못하는 성도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동그렇게 둘러앉아 3팀으로 나누어 같은 날부터 시작되는 찬송부르기, 돌림찬송부르기, 사회자의 재미있고 의미있는 풍자극 이야기를 듣고 제일 잘 웃는 사람에게 스마일 상을 주는 등 즐거운 연합의 시간을 가졌다. (한숙정 통신원)

충원복지단

정신지체인 줄다리기에서 2연패

지난 6월 10일 한강시민공원(만포지구) 축구경기장에서는 한국정신지체인연맹연합회 소속지회가 주최한 제2회 서울지역 정신지체인 축구대회 및 줄다리기 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서울지역 정신지체인 특수학교, 시설, 임의 단체에서 3천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각 기구별로 16개의 축구팀과, 7개의 줄다리기 팀이 참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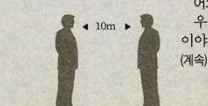
북지에서는 적점률전성 92명, 지도교사 12명, 자원봉사자 3명 등 114명이 참가했다. 축구경기는 비록 순위에 들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었으며, 줄다리기는 작년에도 이어 또 우승을 차지하여 2연패를 이루었다. 줄다리기에 참여한 30명의 훈련생과 2명의 교사 모두 하나되어 온 힘을 다해 줄을 당겼고 열렬한 응원도 나란히 선 응원단원들이 꽃술을 흔들며 목청이 터지도록 응원을 하였다. 날씨가 무척이나 더워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새가방에 달았던 하나된 승리의 기쁨으로 모두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다.

'마이크'는 이렇게 사용합시다

-예배 기도자들을 위하여-



교회내에서 마이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입과 마이크의 거리는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좋지 않다. 가장 좋은 거리는 주먹 2개를 포개는 거리, 즉 20-25cm 정도가 적당하다. 너무 근접하면 목소리가 굵어지고, 효율을 낼 때에(예: 평강, 평안) 입의 바람이 마이크에 들어가서 펑크 소리가 난다. 반대로 멀어지면 소리가 가늘어지고 음이 작아진다.



어느 정도의 소리가 적당할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10m 앞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만할 수 있을 정도의 소리가 적당하다. (매출)

교회 소식

● 알 림

1. 전야회(종교) 28일(다을 주일) I, II, III, IV, V 부 예배 드림니다.
기도와 정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 단신교포 / 주국(20일 ~ 29일) - 방글라데시(25일 ~ 7월 4일)
· 수단(27일 ~ 7월 10일),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3. 교육국 자원 봉사자 모집 / 자원 봉사자실 분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목적: 교육국(주 473-6번)
· 분/ 전산 자료 입력 · 자료 PC 인터넷 사용 할 수 있는 분으로서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작업임 · 인원/ 00명

● 오 미

1. 정로 화요새벽기도회 / 23일(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2. 전야위원회 월례회 / 오는 한양예배 후, 한양위원회실
3. 교육위원회 월례회 / 오는 15:30, 국제회의실
4. 주일오우회기도회 / 매주일 15:00-16:30, 사랑방 예배실
5. 실업인전도회 임원회의 / 24일(수) II부예배 후, 실업인전도회실
6. 실업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25일(목) 새벽기도 후, 실업인전도회실
7. 안수집사회 부부 찬양집회 / 오는 15:30, 베다니홀
8. 안수집사회 월요새벽기도회 성경공부 / 22일(월)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9. 권사회 제4회 월례회 / 24일(수) I부예배 후, 사랑방부실
10. 교회준공을 위한 소위원회 / 오는 16:00, 사무국

● 남녀전도회

1. 바 물 2 / 오는 15:00, 안락홀
2. 바 물 4 / 오는 15:00, 교육관 202호
3. 바 물 11 / 오는 교구모임 후, 영아방
4. 바 물 13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310호
5. 바 물 16 / 오는 교구모임 후, 임마누엘홀
6. 바 물 17 / 오는 15:00, 교육관 307호
7. 베드로 5 / 27일(월) 19:30, 본전부대(은마사 뒤, ☎ 556-0246)
8. 베드로 6 / 오는 15:00, 복자전 지하층
9. 베드로 10 / 28일(다을 주일) 19:00, 김영복 집사대(931-8184)
10. 베드로 11 / 오는 교구모임 후, 영아방
11. 베드로 12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409호
12. 베드로 14 / 오는 교구모임 후, 안나홀
13. 요 한 6 / 27일(월) 18:00, 송영삼 집사대(414-5415)
14. 요 한 13 / 오는 14:00, 갈변홀
15. 요 한 14 / 오는 19:00, 목동 배리공원(648-2516)

16. 한 나13 / 오는 교구모임 후, 사랑부실
17. 예스터 1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407호
18. 예스터 2 / 23일(화) 10:30, 교구 집합(홍정숙 집사대)
19. 예스터 5 / 오는 교구모임 후, 복자전 지하2층
20. 예스터 6 / 오는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
21. 예스터 7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205호
22. 예스터 9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414호
23. 예스터10 / 23일(화) 11:00, 영명교회
24. 예스터12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212호
25. 예스터13 / 오는 교구모임 후, 사랑부실
26. 예스터15 / 야에배 및 노방전도, 22일(월) 11:30, 관안사 매표소 앞
27. 예스터16 / 오는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
28. 루디아 2 / 22일(월) 10:30, 교동명 경비실 앞(비오면 → 갈변홀)
29. 루디아 8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501호
30. 루디아13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311호
31. 미리아 6 / 23일(화) 11:00, 이국표 집사대(401-6513)
32. 미리아 9 / 23일(화) 11:00, 화동동 수산동회(209-9595)
33. 미리아13 / 오는 III부예배 후, 관변홀
34. 미리아17 / 23일(화) 09:00, 중랑 종합사회복지관

● 별 훈

1. 김천구교(간자현 장로, 오기숙 집사의 아들, 제19교구)와 고은하영(고영동 장로, 한영심 성도의 딸) / 26일(금) 12:00 갈변리홀
2. 신동진교(신기만 집사, 이순자 집사의 아들, 제13교구)와 장영정양(김정순 성도의 딸) / 27일(토) 13:30 화성교회
3. 마이크 쿠지마노(조세훈 쿠지마노 성도, 프랜시스 쿠지마노 성도의 아들)와 조유리양(조신근 장로, 김영자 권사의 딸, 제11교구) / 27일(토) 15:00 미국 나성영교회

● 별 세

1. 신정순 권사(권정희 목사 모친, 신영은 권사 언니, 고평목 장로 처형, 제1교구 장구구역) / 15일 별세, 17일 장례
2. 김숙여 권사(박규연 집사 모친, 강옥희 집사의 시모, 제17교구 경남구역) / 15일 별세, 17일 장례

★ 춘천소석장교회 장학생 최종선발
면접 및 필기시험 / 27일(토) 10:00 국제회의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지
1077	박기순	2	소방부	이영환(2)	1091	김소영	15	청년1부	이승희(1)	1105	박성우	19	예배다부	
1078	홍현희	6	루디아	유주원(19)	1092	하현정	19	청년1부	박형준(15)	1106	함용복	19	예배다부	
1079	김영숙	2	방물	김은영(2)	1093	신현기	19	청년1부	김장영(19)	1107	김영진	19	예배다부	
1080	조영숙	6	루디아	1094	김현희	19	청년1부			1108	권민선	19	예배다부	
1081	최희성	6	베드로	1095	김한설	19	청년1부			1109	서정우	19	예배다부	
1082	최희숙	6	고동부	1096	강영식	19	청년1부			1110	권현인	19	예배다부	
1083	박대근	7	바울	이진규(7)	1097	홍성남	2	청년1부		1111	김두수	19	예배다부	
1084	윤태환	8	청년2부		1098	노현례	15	루디아		1112	한성호	19	예배다부	
1085	노은희	9	청년2부	박명영(10)	1099	서이진	15	고동부		1113	김진숙	19	예배다부	
1086	이현희	8	고동부	최효준(11)	1100	조진영	19	예배다부		1114	장우진	19	예배다부	
1087	서강수	10	바울	이은자(10)	1101	박은경	19	예배다부		1115	김현호	19	예배다부	
1088	오 영	10	한나	이은자(10)	1102	이인경	19	예배다부		1116	김자옥	19	예배다부	
1089	이창환	19	청년2부	박윤석(8)	1103	최진희	19	예배다부		1117	김정훈	19	예배다부	
1090	장명숙	15	청년1부		1104	임병환	19	예배다부						

※춘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문 203호 새가족 등록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 말씀

범사에 감사

임 통 계(집사, 1교구)



4살인 늦둥이 아들 다니엘의 친구 3 명이 놀러왔다. 5살짜리와 7살짜리 2 명이 함께와 운동기구와 장난감을 가지고 한참 신나게 놀고 있다가 아들과 5살짜리 친구가 대문밖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는 동안 7살짜리 두 친구는 계속해서 집안을 돌아다니며 머물고 어수선해서 '너희들도 밖에 나가서 놀아라'는 말이 복귀명까지 올라왔다. 소란 순한한 아이들이 자기들 놀이에 빠져 있는 것을 어른 입장만 생각하고 그만두게 하려니 자식 큰 몸마의 입장에서 말을 꺼내지 못했다. 한참을 놀다 다 놀았는지 나가려는 아이들을 보고 "장난감을 치우고 가자

지" 하며 정리하도록 했다. 정리를 하던 꼬마 하나가 "다니엘은 참 나빠, 장난감도 치우지 않고 나갔잖아" 다른 꼬마도 같은 말을이었는지 "그래 친구도 나빠 장난감도 안 치우고 나갔어" 그 말 속에는 같이 놀았는데 자기들만 치워야 하는 불만이 자연스레 흘러나오고 있었다. 열방에서 듣고 있던 나는 속으로 우습기도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까맣게 잊고, 나도 일상 생활에서 작은 일에 불평 불만을 품고 쉽게 내뱉지는 않는지, 이런 꼬마들은 나를 비취 주고 있었다.

안내드립니다

◇ 승강기 가동 시간

에너지의 절약을 위해 선교관 승강기 가동 시간을 06:00-19:30으로 제한합니다.

◇ 분실물 · 습득물

교회내에서 물건을 분실하였거나 습득했을 경우에는 교회 사무국(교육관 102호)으로 연락하시면 물건의 주인을 정성껏 찾아드리겠습니다.

◇ 물품 · 장소 사용 신청

물품 사용 신청이나 장소 사용 신청은 부서장의 확인 후 교회 사무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서는 사무국에 비치).

금주의기도제목

- [1] 김창민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육신의 건강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 [2] 종이여 믿고 기도 전도대와 중구1팀, 방글라데시, 수단 단신교포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어진 일을 아름답게 이루며 그 사역을 붙들어 주서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종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안에 가져와 그 복을 따라 행하며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 [3] 각 예배사수를 맡은 모든 일꾼들이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여 성령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소서.
- [4]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열기가 활발하도록 하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있게 참여 하소서.
- [5]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지게 하소서.
- [6] 나라가 어려움에 이대해 힘들고 고생스러워 방황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 [7] 종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믿음중에 강건케 하시어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 원로목사

김창민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홍성 집회수

김필수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김정현 집회수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

이종대 박경환 장영석